일주문

용성 스님 탄신기념 봉찬법회 봉행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6월 11일 죽림정사에서 용성 스님 탄신을 기념한 제145회 봉찬법회를 봉행했다.

6·25참전용사영가지장기도5재 법문
서울 현성정사 회주 현성 스님은 6월 11일 오전 10시 부산 내원정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영가를 위한 지장기도 5재 법문을 했다.

2군 사령부 대법당 점안법회 법문
강릉 성원사 회주 주경 스님은 6월 15일 대구시 수성구 2군 사령부 대법당 부처님 점안법회에 참석해 법문했다.

무애춤 현대적 해석 주제 특강
원효무애춤명상보존회장 도각 스님은 6월 17일 오전 10시 한국예술종합학교 226호실에서 '원효사상과 원효 무애춤의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특강한다.(02)2265-8858

알기 쉬운 불교교리강좌 강의
김재일 동산불교대학 이사장은 6월 18일~8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김재일 법사의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02)732-1206

재가연대 창립9주년 후원의 밤 열어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는 6월 19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가연대 창립9주년 기념식과 함께 후원의 밤 행사를 연다. (02)2278-3417

"상 받으려니 부끄러울 따름"

오현 스님 공초문학상 수상

나아갈 길이 없다
둘러봐야 사방은 허공 끝없는 낭떠러지
우습다
내 평생 헤매어 찾아 온 곳이 절벽이라니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란 말이냐

시 '아지랑이'로 제16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한 오현 스님.

시인 오현 스님(신흥사 회주)이 지난 해 상재한 시집 <아득한 성자>에 실린 위의 시 '아지랑이'로 제16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사(사장 노진환)와 공초 오상순선생 숭모회(회장 이근배)가 주관하는 공초문학상 시상식은 6월 12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 오현 스님은 "말과 글을 버리는 공부를 하는 중이 시를 쓰고 상을 받는 일은 아무래도 우스운 일이다. 옛날에 절에서 중노릇 못하는 사람을 쫓아 낼 때는 몹시 망신을 주어 내쳤다는데, 나도 상을 받으려니 절에서 쫓겨날 것 같은 부끄러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러나 김남조 선생이 조금 전에 상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받아야 한다고 말해 줘서 조금은 기쁘기도 하다"고 겸양했다.

오현 스님은 "내가 오래전에 공초 선생님을 조계사에서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께서는 누구에게나 만나면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그런데 나를 보면 늘 '중 옷을 입고 뭐가 그리 바쁘냐'며 일없는 가운데 귀한 참사람(無事眞人)이 되라고 권하곤 하셨다"고 회고했다.

공초문학상 심사 위원장 오세영 시인(서울대 명예교수)은 심사평을 통해 "오현 스님에게 이 상을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본상의 정신적 지주라 할 공초 선생의 일생이 무소유를 실천하는 불가의 가르침에 바탕한 스님의 그것과 너무나 일치하는 바 있어 스님의 수상을 배제하고서는 이 상의 존재 의미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영 시인은 또 "작품의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오현 스님의 문학이 현대시단에 끼친 공적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문학사에서 최초로 시조시형에 선시를 도입한 선구자가 스님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는 김남조 김종길 두 원로시인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근배 시인도 공초 선생을 추모하며 오현 스님의 수상이 공초 선생의 구도자적 삶과 깊은 의미의 연관을 갖는다고 말했다. 시상식에는 정진규 이승훈 구중서 신달자 조정래 송준영 홍성란 공광규 이숭원 이지엽 홍사성 서정춘 이가림 성찬경 김초혜 이상국 등 많은 문인과 동선 삼조 홍진 정념 혜관 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부산 동명불원 고승초청법회 봉행

부산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6월 4일,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을 초청해 '고승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3000여명이 참례했다. **조동섭 기자**

광주 무각사 지관 스님 초청 법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6월 7일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에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법문했다. 지관 스님은 "행복은 중심을 바로 세워 생활궤도를 바꿀 때 오는 것이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스국제불교도협회 발족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우학)는 6월 8일 대웅전 연화법당에서 한국스리랑카국제불교도협회를 결성, 발족식을 가졌다. **김성우 기자**

원융종 지혜원 준공법회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성관)은 6월 8일 전북 정읍시 소재 칠보암(주지 진월) 도량 내에 부지 4000여평 규모의 지혜원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원융종 중앙종의회의장과 교육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김성우 기자**

대구 덕안사 삼존불 이운 중창불사봉행

대구 덕안사(주지 종관)는 6월 8일 삼존불 이운법회 및 중창불사를 사부대중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종관 스님은 "불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자신을 닦아 늘 깨어있는 당당하고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불이상 수상자 선정

각현 스님 · 황순일 교수

제23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과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황순일 교수가 선정됐다. 실천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선구적인 인물로, 1990년 연꽃마을을 설립해 노인복지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또한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황순일 교수는 초기부파불교를 전공하고 있는 소장 불교학자로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부분에 업적을 남기고 있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2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금은 각 분야별 1000만원. (02)762-5624 **김강진 기자**

"공교육 정상화 통해 부처님 법 실천할 터"

서울시 교육감 출마한 박장옥 前 동대부고 교장

"서울시민이 원하는 교육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 법의 실천입니다."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종립학교 교장이 사상 처음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불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교육 개혁 선구자로 불리는 박장옥 前 동국대사범대 부속고등학교 교장이 주인공. 그는 교육감 출마를 위해 30여년 몸담은 종립학교 교장직을 내놓고 5월 29일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후보는 동대부중(舊 명성여중)을 시작으로 여중에서 7년, 동대부여고에서 15년, 동대부중에서 3년, 동대부고에서 3년 모두 28년을 교단을 지키며 종립학교 위상을 높여왔다. 교장이 돼서도 직접 수업에 나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충수업과 자율수업의 파격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 성적을 괄목하게 성장시켜 온 그다.

박 후보가 동대부중 교장 재임 때다. 오후 3시 하교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보충수업 금지 지시 공문이 왔지만, 박 후보는 자율학습을 고수했다. 자율학습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학생 보호를 위해 그가 내린 결단이었다.

박 후보는 교장 신분일 때도 수업에 나서 화제였다. 동국대 수학과 출신으로 수학 교과 교사였던 그는 방학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학생을 직접 가르쳤다. 매 수업이 끝나고 찾아오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는 서류결재를 했다.

교장 선생님이 왜 직접 학생을 가르쳤을까? 박 후보는 "방학 중 보충수업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웃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항상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육자의 의무와 직접 가르쳐봐야 학생 수준을 파악해 교사들에게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었다.

박 후보는 교장 재직 시절 이미 사교육비 70% 절감 가능성을 증명했다. 실력 있는 강사를 직접 초빙해 평균 24만원이던 학원비를 과목당 1만 8000원의 보충수업으로 해결했다.

박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사교육비 70% 절감 ▲학생안전 보장 ▲특수교육 활성화 ▲학교문화 개선 등 공약들은 이미 그가 교장직에 있으면서 실천했던 것들이다.

"학교가 애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면 사교육은 필요없다"는 박장옥 후보. 그가 동대부고 등 종립학교에서 증명한 교육비전을 서울시 교육을 통해 널리 펴겠다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박장옥 후보의 하화중생(下化衆生)한 행보에 7월 30일 서울시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